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8

“우리도 함께 뛰다”

김동주 7억원 ‘연봉킹’



광주시체육회가 마라톤을 통해 진정한 체육인의 정신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3·1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건강한 광주 만들기’ 한마음 레이스

■ 광주시 체육회

“마라톤을 통해 도약하는 광주체육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광주 만들기와 전문 체육 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시체육회가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질주를 통해 진정한 체육인 정신을 보여주겠다”고 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전문 체육인 육성에 앞장

광주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은 매년 3·1절 마라톤을 통해 봄을 맞이해왔지만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임직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이번 대회는 민선 5기 체제 출범 후 첫 출전하는 대회. 그만큼 체육회 임직원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3·1 마라톤을 위해 체력 관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부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홍식(54) 상임 부회장은 대회를 앞두고 체육시설물 점검시 도보로 이동을 하는 등 부쩍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동신대 체육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등 각종 체육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지만 새 집행부 구성과 함께 현안 업무를 처리하느라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만큼 이번 대회를 건강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따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월드컵경기장, 무등경기장, 영주체육시설을 매일 걸어서 돌아보고 있다. 하루에 만보 이상은 걷는 것 같다. 걸어서 다니면서 시설물을 세심하게 점검할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3·1 마라톤을 계기로 건강에 더욱 신경 쓰면서 건강한 광주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대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 육상을 했던 박재현(53) 사무처장도 도보로 체육시설물을 점검하면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시설물 점검 틈틈이 체력단련

‘도보 점검’에 동참하고 있는 장종대(59) 체육시설관리부장은 휴일에는 등산으로 체력을 기르는 등 마라톤 대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조선대 육상 감독을 역임한 안재오(42) 훈련계장도 마라톤 대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안재오 계장은 “이번 대회를 개개인의 마라톤 실력과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무엇보다 체육회 직원들이 앞장서서 생활 속 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회 참가자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며 “기록보다는 초보자들이 건강하게 뛸 수 있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고령 41세 이종범·최단신 165cm 김선빈

프로야구 소속 선수 공시

‘디펜딩 챔피언’ SK 와이번스가 1억1402만원으로 2년 연속 평균 연봉 1위를 지켰다. 두산 김동주는 7억원의 연봉으로 3년 연속 ‘연봉킹’ 자리를 지켰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0일 2011년 프로야구 8개 구단의 소속선수를 공시했다.
 기존 선수 406명에 신인선수 63명 그리고 외국인 선수 15명이 더해지면서 2011년 프로야구 등록선수수는 총 484명이다. KIA는 투수 29명, 포수 4명, 내야수 16, 외야수 13명 등 총 62명이다.
 2011시즌 역대연봉 선수는 지난해보다 10명 줄어든 100명으로 집계됐다.
 SK 와이번스는 1억1402만원으로 2년 연속 평균연봉 1위를 차지했고, KIA는 9094만원으로 SK·삼성·두산·롯데에 이어 5위에 랭크됐다.
 두산 김동주가 전체 연봉 1위에 오른 가운데 투수 중에는 롯데 손민환이 6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SK 박경완과 LG 조인성은 5억원으로 포수 최고 연봉자에 이름을 올렸다.
 KIA의 캡틴 최희섭은 4억원의 연봉으로 1루수 최고 연봉자가 됐다. 이외에 2루수

SK 정근우(3억1000만원), 3루수 롯데 이대호(6억3000만원), 유격수 SK 박진만 (2억5000만원), 외야수 LG 이진영(5억5000만원)이 포지션별 연봉 1위를 장식했다.
 LG의 3년차 유격수 오지환은 연봉이 24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325% 수직 상승하면서 연대 인상을 3위를 기록했다. ‘세이브왕’ 넥센 손승락도 3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연봉이 오르면서 271.4% 인상률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연차는 7.5년으로 지난해보다 0.3년 높아졌으며 SK가 8.4년으로 최고 연차를 기록했다. KIA는 6.8년으로 가장 젊은 구단으로 나타났다.
 등록선수의 평균연령은 지난해보다 0.9세 낮아진 26.6세로 양준혁의 은퇴로 이종범(만 41세)이 최고령 선수가 됐다. 삼성 신인 심창민은 만 18세로 이종범과 23세 차이다.
 ‘작은 고추’ 김선빈(165cm)과 최현교 출신의 장신 투수 두산 장민익(207cm)은 42cm 차이로 최단신과 최장신 자리를 지켰다.
 최경량과 최중량과 선수는 모두 롯데에서 나왔다. 신인 장국현이 67kg을 기록했고 이대호는 두 배에 육박하는 130kg으로 최중량 선수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엔씨, 초대 단장 내달 말까지 선임

창원시를 연고로 한 프로야구 ‘제9구단’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엔씨소프트가 창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10일 구단 설립을 책임지고 선수단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단장을 구단주 총회의 가임 승인 시점 직후인 3월 말까지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대표협력 홍보담당 상무는 “초대 단장은 회사와 감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구에 식견이 있고 구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면서 “현재 10명의 명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압축하고 나서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히어로즈의 초대 단장으로 활동했던 박노준 SBS 해설위원과 김연중·이영환 전 LG 단장, 이상구 전 롯데 단장 등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단장을 선임하는 대로 선수단 구성 작업에 들어간다. 현재 선수단과 프런트 구성 방안을 외부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가운데 오는 3월말 단장 회의 때 선수단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이 상무는 “내년 1군 리그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독을 선임하는 건 명망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실례가 될 수 있다”며 “구단주 총회에서 승인받는 대로 구단주를 맡을 김택진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월8일 단장 회의에서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한 선수공급 방안을 마련한 뒤 정규리그 개막일인 4월2일 이전에 구단주 총회를 개최해 엔씨소프트의 회원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황뉴스

경보 김현섭 3위·멀리뛰기 김덕현 36위

〈삼성전자〉 〈광주시청〉

한국육상 세계랭킹 40위내 10명

한국 육상이 지난해 기록으로 따진 세부 종목별 세계 랭킹에서 40위 이내에 10명의 선수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육상단이 최근 발간된 미국 육상잡지 ‘트랙 & 필드’ 2월호를 분석해 10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작년 작성된 47개 세부 종목(남자 24개, 여자 23개) 기록 랭킹에서 남자 경보와 남자 창던지기, 여자 멀리뛰기와 100m 허들의 한국 간판선수 10명이 세계 4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우 아시안게임 남녀 멀리뛰기에서 동반 우승한 김덕현(광주광역시청)과 정순욱

(안동시청)는 각각 8m11과 6m71을 뛰어 36위와 29위에 올랐다.
 또 여자 1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연경(안양시청)도 한국기록을 13초00까지 줄이면서 세계 36위로 도약했다.
 10명의 선수 중 세계 톱클래스에 가장 가까운 선수는 남자 20km 경보 간판 김현섭(삼성전자)이다.
 김현섭은 작년 전국체전에서 개인 최고기록인 1시간19분36초를 찍었고 이 기록은 작년에 수립된 이종목 세계 기록 중 3위에 올랐다.

그밖에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탄 남자 50km 경보에서는 3명이40위에 포함됐고 남자 창던지기 쌍두마차인 정상진(용인시청)과 박재명(대구시청)도 30위와 36위를 달렸다.
 한국의 대표선수인 이들은 올 8월 대구에서 개막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해 동계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주최국은 각 종목에 1명 또는 한 팀이 자동출전할 수 있지만 이들은 세계대회 출전 자격을 주는 마지노선인 B 기준기록을 통과해 자격으로 당당히 대구스타디움 트랙을 밟겠다는 각오다.
 /연황뉴스

제2회 호남권 V.I.P 초청 해비치 골프대회

제주도 6성급 해비치 특급호텔&리조트를 사랑해주시고 골프전문 家 스피드 골프투어를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 2011년 3월 15일(화) ~16일(수) 1박2일
 ●장소 : 제주 해비치C.C (정규 36홀)

시상내역

▷남자부 우승	기념패+호텔 디럭스 객실 2박
▷여자부 우승	기념패+호텔 디럭스 객실 2박
▷남자부 준우승	기념패+리조트 32평 객실 1박
▷여자부 준우승	기념패+리조트 32평 객실 1박
▷메달리스트	기념패+골프장 1인 무료 라운딩권
▷롱기스트	기념패+아시아나 국내선 왕복항공권 1매
▷니어리스트	기념패+아시아나 국내선 왕복항공권 1매
▷최다버디상	아시아나 국내선 왕복항공권 1매
▷최다파상	리조트 32평 객실 1박
▷최저타상	골프장 1인 무료 라운딩권
▷추첨행운상	아시아나로고상품, 해비치로고볼, 해비치골프장갑, 해비치로고상품
▷참가상	해비치로고모자, 고급항공 내임택

대회일시

▶본 대회 : 2011년 3월 15일(화) 제주 해비치C.C18홀
 ▶친선대회 : 2011년 3월 16일(수) 제주 해비치CC 27홀
 ※골프장변경가능 : 세인트프스CC, 사이프러스CC 등

참가인원 ▶120명 선착순 한정마감 **참가자격**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방식 ▶샷건, 신페리어 **참가비용** ▶₩ 369,000

포함내역

▶항공료,유기할증료,그린피45홀,해비치리조트, 전용차량, 기사팀, 여행자보험
 ※특전사항: 조식1회, 중식1회, 특석식1회, 친선대회-해비치C.C 9홀서비스

불포함내역

▶2일째 클럽중식, 전동카, 캐디피, 개인경비

주최 **해비치호텔&리조트** 후원 **아시아나항공** 주관 **투어클럽 & 스피드 골프투어**

예약센터 **아시아나항공** 최우수 대리점 제주도 특급호텔&골프장 **호남총판 투어클럽 & 스피드 골프투어** 062)382-8201 M.P 010-3613-7810